<인터뷰:동부화학 김동선 사장>

“수급자간 공조 분위기 아쉽다!”

◆ 현재 국내 산시장 현황은?

● 무기화학은 공업화 초기 금속 제련과 관련하여 황산 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부화학은 비료원료용으로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질산 · 정제인산은 생산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정밀화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부화학은 비료공장의 이노베이션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효율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 질산은 연평균 수요증가율이 20%선에 이르지만 국내수요가 13만톤인데 비해 생산능력이 40만톤에 달해 신규 참여기업들의 초기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이며, 더욱이 동부화학은 자가소모분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 비료공장에서는 농질산을 희석하여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회사에서 질산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계적인 현황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남해화학에서 질산을 생산해왔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질산은 현재 수요(자가소비분 포함)가 16만톤에 불과하나 향후 큰 폭의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양바스프의 MDI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동양화학 TDI공장 및 한불화학 아디픽산 공장 가동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규 수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싱가폴소재 듀폰의 연산 10만톤 규모 아디픽산 공장이 가동되면 10만톤의 질산 수요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싱가폴 공장에 남해화학이 연간 6만톤, 동부화학이 4만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동남아시장은 자체 생산량이 적은 상태여서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94년경에는 수급이 일정수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제품이든 생산초기에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수요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정제인산은 공장준공 이후 상당기간 공장가동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 정제인산은 투자비가 막대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산 수요도 생활수준이나 공업화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건식법을 통한 생산은 경쟁력이 떨어져 감소하고 있으며, 습식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동부화학은 습식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부화학과 쁘레용의 합작 초기만 해도 쁘레용이 국내에 연간 5000톤을 공급하고 있었고, 동남아 수출도 상당량 하고 있어 국내 단일공장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이 완료될 즈음 저가의 중국산 유입이 급증해 시장여건이 악화, 합작사인 쁘레용사와 트러블이 발생, 결별하는 등으로 인해 가동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 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사실상 덤핑제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밀화학제품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막대한데 반해 변동비가 50% 이하여서 사업초기 국가의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들이 시장석권을 위해 국산화 초기 저가의 덤핑공세를 자행하고 있어 적정보호가 불가피하며, 수요자들의 이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생산기업 및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생산 · 수요기업들의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는 공조 분위기가 성숙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에 대해서 일단 생산 초기단계에 놓인 업계의 고충을 이해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수요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비축해 놓고 있어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나,93년에는 판매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제련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황산시장에 동부화학도 잉여물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요기업들의 한국황산주식회사(가칭) 설립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황산은 산제품 중 수급균형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동부화학은 연간 4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가소모 차원이고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시장상황에 무관한 편입니다.
황산은 다른 제품과 달리 폐기비용이 생산비보다 훨씬 비싸기때문에 잉여물량 처리가 곤란한 제품입니다. 수요기업들의 황산공장 설립은 정확한 시장 및 수급판단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동부화학은 에틸렌 및 벤젠을 외부에서 구입, SM 및 PS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SM이 공급과잉임에도 불구, 수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에틸렌은 유공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으나, 벤젠은 대부분 수입하고 일부를 쌍용정유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타 SM제조 5개사는 원료를 자급하고 SM을 자체적으로 대량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SM시장은 생산 120만톤 · 수요 90만톤으로 자체소비를 제외하고 SM을 대량 구매하는 한남화학 · 효성바스프 등이 주 수요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고 또 생산기업들은 가동률 유지를 위해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M 생산기업들이 공조체제를 모색해 왔으나, 결렬돼 가격구조가 문란한 실정으로 수요 · 공급기업간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SM을 수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EPS가격이 동부 · 제일 등의 신규 참여로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은?
● 동부화학 및 제일모직의 신규참여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인해 선 · 후발 가릴 것 없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기업들과 후발기업들이 합의점을 도출, 수급 및 가격정상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환경처에서 EPS 사용을 적극 규제하고 나서 정부와 EPS기업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 국내에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93년 9월부터 EPS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나서 EPS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플래스틱 대체재로 종이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리사이클링을 통해 EPS를 재자원화하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92년 EPS 수요가 91년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완벽한 수거체제를 갖추어 리사이클링이 활성화되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올해말 EPS 재자원화 협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원료 메이커 및 가공업계 공동으로 리사이클 노력이 가시화되는 등 향후 EPS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943년 충남 연기 출생
60년 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68년 Scoula Enrico Mattel(이태리 밀라노)의 석유화학 대학원과정 수료
76년 한국프라스틱 프로젝트 실장
84년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이사
88년 동부석유화학 전무
91년 동부화학 대표이사

<화학저널 1992/12/15>